고바야시 형제: 오쿠이즈모의 일본도 장인

고바야시 가문은 18 세기 후반부터 오쿠이즈모 지방에서 제철과 일본도 제작에 힘써 왔습니다. 1980 년대부터 세 형제가 주축이 되어 일본도 제작 기술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. 고바야시 리키오(1948 년 출생), 고바야시 사다토시(1941 년~), 고바야시 히로쓰구(1938 년~) 세 형제는 각각 장인명인 '사다나가', '사다노리', '사다테루'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

세 형제는 아버지인 고바야시 다이시로(1903~1976), 일명 '사다요시'의 지도 아래 어릴 적부터 일본도의 제작 방법을 배워왔습니다. 사다토시와 히로쓰구는 1970 년에, 리키오는 1972 년에 문화청이 발행하는 도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. 1982 년과 1983 년에 일본미술도검보존협회의 주최로 개최한 전람회에서는 세 형제 모두 출품작이 입선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.

고바야시 형제는 대외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지역 및 전국 도장조합의 사무국을 맡는 한편, 박물관의 부지에 조성한 공방에서 일본도를 제작하는 실연을 정기적으로 선보였습니다.

1999 년, 시마네현은 리키오와 사다토시 형제를 무형문화재로 인정했습니다.